

LIQUID MODERNITY | November 22, 2025 – January 10, 2026

ABOUT THE EXHIBITION

BB&M은 국내외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1990년대생 작가 조재, 이해반, 성시경의 그룹전 《유동 근대(Liquid Modernity)》를 개최한다. 정보화와 세계화, 소비문화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은 변화의 속도가 멈추지 않는 동시대적 조건에서 각자의 지각적 체계를 구축해왔다. 세 작가는 회화라는 전통적 매체를 바탕으로 동시대 환경이 만들어낸 감각, 물질, 기억, 이미지의 역학을 재해석하며 오늘날 현대인이 직면하는 불안정한 존재론을 탐색한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이 말한 ‘고체 근대(Solid Modernity)’는 제도, 규범, 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시대를 가리킨다. 반면 ‘유동 근대(Liquid Modernity)’는 1970년대 이후 사회적 구조가 급격히 변이하고 역할이 반복하며 재조정되어 존재의 기반이 불분명해진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장한 작가들은 고정된 조형 언어를 따르기보다 유연한 형식과 실험적 접근을 통해 속도, 불확실성, 지각의 파편화를 자신만의 회화적 문법으로 전환한다. 이들의 작품은 이미지 과잉 속에서 흔들리는 세계 인식과 정체성의 변화를 시각적 리듬으로 포착한다.

조재는 빠른 일상 속에서 소거된 감수성의 충위를 섬세하게 복원한다. 그는 도시의 잔여물, 기계 부품, 포장재와 같은 사물의 파편을 채집해 손으로 빚은 뒤, 이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고 다시 인화지를 캔버스 위에 정착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물성과 비물질성 사이의 전환을 탐구한다. 이러한 방식은 감각을 능동적으로 회복하려는 전략으로 작동하며, 가속된 시각 환경을 식히는 ‘쿨 다운 타임(Cool-down time)’의 내적 시간을 의미한다. 물질과 이미지의 왕복은 유동 근대의 속도성이 악화시킨 지각적 리듬을 재정렬하는 시도로 이어진다.

DMZ 인근 강원도 철원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현재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활동하는 **이해반**은 경계 지대에서 포착한 장면을 바탕으로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풍경을 구성한다. <배틀 그라운드(Battleground)> 시리즈는 화면에 흩뿌려진 물감과 희미한 빛의 자취를 통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긴장과 억눌린 감정이 흐르는 심리적 지형을 드러낸다. 그의 풍경은 유동 근대에서 더 이상 견고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계의 위태로움을 시각화하며 현실과 비현실, 고요와 위태로움이 공존하는 인식의 틈을 형성한다. 이러한 초현실적 장면들은 경계가 흐려진 시대의 감각적 조건을 관객이 직접 체감하도록 만든다.

성시경은 자유로운 붓질과 과감한 색채로 즉흥성과 구조, 우연성과 질서 사이의 긴장을 탐구한다. 그는 구체적인 형상을 제시하기보다 선과 면이 충돌하고 조율되는 과정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장면을 구축한다. 이번 전시의 신작은 자유로운 추상과 절제된 추상 두 흐름으로 전개된다. 전자는 개방적인 구성 속에서 붓의 움직임의 흔적을 좇고, 후자의 <개미놀이(Ant Play)> 연작은 이러한 자취를 확장해 반복과 패턴의 체계로 재구성한다. 성시경의 작업은 고정된 규칙이 해체된 자리에서 우연의 리듬이 만들어내는 변주성을 드러내며 유동 근대의 불안정한 세계를 회화적 진동으로 번역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탄생한 화면은 통제와 해방의 미묘한 균형 속에서 가변적 질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세 작가의 작품은 변하는 감정과 끊임없이 갱신되는 정체성의 순간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영하여 관객을 변화시키는 관계의 장으로 이끈다. 이번 전시는 현실이 남긴 회화적 흔적을 따라 감각, 기억, 시간이 교차하는 장면을 펼쳐 보이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회화가 사유의 공간을 어떻게 다시 열 수 있는지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다.



조재(b. 1990)는 빠르게 소비되는 동시대의 감각 속에서 신체적 지각의 축소와 사유의 단절이 드러내는 인식의 한계를 회화를 통해 사유의 확장으로 전환한다.

작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며 영국 왕립예술대학에서 회화 석사 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조소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2025년 WWNN, 2023년 금호미술관, 2020년 인터아트채널, 2018년 공간413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참여한 주요 단체 전시로는 주영한국문화원(런던, 2025), APOproject(서울, 2025), 아트센터 화이트블럭(파주, 2024), 뉴스프링프로젝트(서울, 2024), TGC(서울, 2024), 지우현(서울, 2024), WWNN(서울, 2023), 지갤러리(서울, 2023), 서울대학교 우석갤러리(서울, 2022), StourSpace(런던, 2019), Unit 1 Gallery | Workshop(런던, 2018), K현대미술관(서울, 2017), The Cello Factory(런던, 2017), Safehouse 2(런던, 2016), Hockney Gallery(런던, 2015)가 있다. 또한 주요 경력으로는 제20회 금호영아티스트와 서울대학교 학문후속세대 (서울, 2023)로 선정되었으며 Unit 1 Gallery | Workshop, Radical Residency II 레지던시 참여(런던, 2018), The Hopper Prize 선정(미국, 2018) 등이 있다.



이해반(b. 1990)은 DMZ 인근 강원도 철원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현재 한국과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국경 및 군사 접경지역에서 직접 포착한 자연과 풍경, 완충 공간과 한계 지점이 뒤섞인 몽환적 장면을 담아낸다.

작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예술학교에서 Artistic Research 석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전시로는 2025년 금호미술관, 2024년 인사아트 스페이스, Bradwolff Projects(암스테르담), 2020년 갤러리 렉스, 2018년 평화문화진지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그룹 전시로는 Museum Arnhem(네덜란드, 2025), 지갤러리(서울, 2025), Stroom Den Haag(네덜란드, 2024), Eurocenter(암스테르담, 2023), Marres(네덜란드, 2022), Omstand(네덜란드, 2022), NEST(네덜란드, 2022), De Helena(네덜란드, 2021), 문화역 서울 284(서울, 2021), Quartair(네덜란드, 2021), Palacio de La Autonomía(멕시코 시티, 2020), Bangkok Art Biennale(태국, 2020) 등이 있다. 주요 소장처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으며 2025년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 2021년 Artist in Retreat Residency(스웨덴) 레지던시, 평화문화진지 레지던시 등에 참여하였다.



성시경(b. 1991)은 한국 현대 미술계에서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주목받는 작가로 즉흥성과 계획성, 우연과 선택 사이를 넘나들며, 자유로운 붓질과 과감한 색채 대비가 돋보이는 추상회화를 선보인다.

작가는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2025년에는 BB&M에서, 2023년에는 d/p, 그리고 2019년에는 공간 형과 쉬프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참여한 주요 단체 전시로는 BB&M(서울, 2025, 2024, 2023), PCO(서울, 2025), INTERIM(서울, 2024), DMZ 아트 프로젝트(파주, 2023), 팩토리 2(서울, 2023), 홍익대학교 박물관(서울, 2023), P21(서울, 2022), 휘슬(서울, 2022), 아트스페이스 3 (서울, 2022, 2019), 페리지 갤러리 (서울, 2021), 원앤제이 갤러리(서울, 2020, 2016)가 있다.

EXHIBITION VIEW



Exhibition view, *Liquid Modernity*, BB&M, Seoul, 2025.

EXHIBITION VIEW



Exhibition view, *Liquid Modernity*, BB&M, Seoul, 2025. Work by Sikyung Sung.

EXHIBITION VIEW



Exhibition view, *Liquid Modernity*, BB&M, Seoul, 2025. Works by Haevan Lee.

EXHIBITION VIEW



Exhibition view, *Liquid Modernity*, BB&M, Seoul, 2025. Works by Jo Jae.

SELECTED WORKS



Jo Jae

On Cooldown 50, 2025

Archival pigment print, acrylic, airbrush, gel medium on canvas

155 x 114 cm

SELECTED WORKS



Jo Jae

On Cooledown 13, 2025

Archival pigment print, acrylic, airbrush, gel medium on canvas

91 x 67 cm

SELECTED WORKS



Haevan Lee

Battleground, 2023

Oil, acrylic on canvas

160 x 120 cm

SELECTED WORKS



Haevan Lee

Battleground Group III Nr. 04, 2025

Oil, acrylic on canvas

116.8 x 91 cm

SELECTED WORKS



Sikyung Sung
격자 *Grid*, 2025
Oil on canvas
205 x 242 cm

SELECTED WORKS



Sikyung Sung

개미놀이 - 짹 짹 *Ant Play - Tight Tight*, 2025

Oil on canvas

91 x 72.7 cm



ABOUT THE GALLERY & THE PRINCIPALS

2009년 제임스 B. 리가 설립한 아트 컨설팅 회사로 출발한 BB&M은 이불, 임민욱, 배영환 등 현재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한국 현대미술계의 주요 작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전시와 프로젝트를 총괄해왔다. BB&M 갤러리는 이러한 기존 활동을 기반으로 제임스 B. 리와 갤러리 현대, PKM 갤러리, 갤러리 바톤 등에서 디렉터와 파트너를 역임하며 리암 길릭(Liam Gillick),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 토마스 스트루스(Thomas Struth),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그리고 단색화의 거장 윤형근 등의 전시를 총괄한 허시영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간이다.

BB&M은 2021년 10월,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은 동시대 최고의 한국 현대미술가 이불의 개인전으로 개관했다. 갤러리 전속 작가로는 이불을 포함해 한국 현대미술의 각 장르와 매체에서 선두적 위치에 있는 임민욱, 배영환, 이진준, 성시경이 있으며 MoMA, 휘트니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며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알렉스 도지(Alex Dodge)와 특유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회화 작품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미코 벨드캠프(Miko Veldkamp)가 있다. BB&M은 프로그램 초기부터 뉴 뮤지엄(New Museum)의 수석 큐레이터를 역임했던 큐레이터 댄 카메론의 기획 전시를 개최하는 등 상업적 측면을 너머 동시대적 맥락 안에서 큐레토리얼 담론을 갖춘 전시를 개최하며 현대 시각 언어에 대한 미적, 비평적 담론들을 형성해나가고자 하는 BB&M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Press Contact: 오지호 ojiho@gallerybbm.com 010 2084 9368